

두통 829명(26.35%), 비출혈 150명(4.76%), 안과질환 10명(0.31%), 귀질환 3명(0.09%) 순서이고, 여학생은 보통 884명(37.20%), 두통 739명(31.10%), 외상 710명(29.88%), 비출혈 31명(1.30%), 안과질환 9명(0.37%), 귀질환 3명(0.12%) 순서이었다.

사춘기 청소년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

대한 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, 1977.

오 경 옥

결 론

1976년 4월 26일부터 1976년 7월 4일까지 10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정상대조군 437명, 고아군 416명, 지체부자유아군 133군, 농아아군 109명을 연구대상으로 Zung의 The Self-rating Depression Scale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.

각 대상을 10~14세군을 사춘기전기, 15~18세군을 사춘기 후기로 2개 연령군과 성별로 분류하여 집단별간에 우울득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.

- 1) 우울득점은 농아아군을 제외하고 연상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.
- 2) 우울득점은 4개군에서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.
- 3) 우울득점은 고아군, 지체부자유아군 및 농아아군에서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높았다.
- 4) 비교군에서 우울득점은 고아군은 지체부자유아군보다 높았고, 농아아군은 지체부자유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.
- 5) 우울증상에 발현 빈도는 정상대조군에서 심리적 증상이 상위수준에 발현되는 반면에 우울득점이 높은 고아군 및 농아아군에서는 신체적 증상이 상위수준에 있는 경향이 있었다.

도시 국민학교 아동의 상병 및 의료이용도에 관한 조사연구

조선대 간전논문집 제1집, 1977.

오 현 이

결 론

도시 국민학교 아동이 가지는 유병량과 상병분포, 의료형태별 의료이용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일부 국민학교 아동 1,542명(남 796, 여746)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학부모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총 380명중 고졸 35.9%, 대졸 26.8%, 중졸 20.3%였으며, 부모별로 보면, 아버지의 경우 대졸 41.6%, 고졸 32.9%였고, 어머니는 고졸 39.7%, 중졸 28.2%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았다.

2) 학부모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적 기술직 종사자가 27.6%, 사무직 26.8%, 판매직이 21.1%로 대부분이 3차산업 종사자였다.

3) 학동의 유병율은 21.4%이고 남학생이 15.1%, 여학생이 28.2%이며, 학년별로는 5학년이 30.5%로 가장 높고 2학년이 12.2%로 가장 낮았다.

4) 이용율에 있어서 두당발생율이 24.5%, 건당발생율이 31.8%였고 유병율은 21.4%였다. 학동의 유병일수는 전체적으로는 3.10일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길고(남학생 3.01일, 여학생 3.19일), 학년별로는 1학년이 4.25일로 가장 길고 5학년이 2.10일로 제일 짧았다.

5) 상병분류별 상병례수는 총 380례중 호흡기계질환이 36.8%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질환이 27.1%로 차위였다.

6) 의료이용도는 약국이용율이 41.2%, 병, 의원통원치료 39.7%로 현대의료의 요구가 많았다.

7) 교육별 의료이용도를 보면 무학, 국졸, 중졸의 경우 약국이용율이 높았고, 대졸, 고졸의 경우 병, 의원통원치료가 우세했다.

8)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무직, 전문적 기술직, 서비스직에서는 병, 의원통원치료가 더 많았고, 판매직, 기능생산, 단순노동, 무직의 경우에는 약국 이용율이 더 높았다.

순천지방 여고생들의 월경과 정신위생에 관한 조사

순천간전논문집 3집, 1977.